

“저작권 부담 NO” 데이터 바우처 인기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콘텐츠 공급업체 6곳·구매지원업체 44곳 선정 신생 콘텐츠 기업, 음원·영상·사진 등 데이터 구매 비용 지원

신생 콘텐츠 기업을 위한 '데이터 바우처' 지원사업이 지역에서 큰 호응을 얻고 있다.

20일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 따르면 올해 '데이터 바우처' 지원사업 참가기업을 모집한 결과 1.4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며 콘텐츠 공급업체 6개사·구매지원업체 44개사가 선정됐다.

광주지역의 경우, 참가기업 미달로 3차까지 모집을 벌인 다른 지역과 달리 일찌감치 모집을 마감하며 좋은 반응을 얻었다.

'데이터 바우처' 지원 사업은 데이터를 구매하거나 데이터 가공에 소요되는 비용을

'바우처' (전표)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중소기업·스타트업·소상공인 등이 완성 콘텐츠를 만드는 데 필요한 배경 그림·효과음 등 '재료 콘텐츠'를 구매할 때 '바우처' 형식으로 비용을 지원한다.

데이터 구매기업은 1건당 최대 1800만원, 공급기업은 1건당 4500만원까지 지원받는다. 올해 전국적으로 지원대상 업체에 주어지는 금액은 600억원에 달한다.

데이터 바우처 사업은 저작권 강화 바람을 타고 올해 처음 시작됐다. '콘텐츠는 돈 주고 사야한다'는 인식이 퍼지면서 신생·중소기업의 저작권 부담이 커졌기 때문이다.

'1인 방송' '웹툰' '웹소설' 등 다양한 미디어가 허락 없이 가져다 쓴 음원과 사진, 영상은 저작권 문제로 불거졌다. 최근에는 240만 구독자를 지닌 유명 '유튜버'가 콘텐츠를 무단 사용하는 일도 벌어졌다.

'재료 콘텐츠'를 만드는 기업은 113조에 달하는 국내 콘텐츠 시장에 진출할 기회를 얻게 된다.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의 '2018 광주문화산업 현황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출판·애니메이션·광고 등 12대 콘텐츠 업체 수는 광주지역에서 652곳이었고, 매출 조사 대상 252곳의 지난해 매출액은 3451억원에 달했다.

이번 데이터 바우처 사업에서 공급업체로 선정된 ㈜스튜디오 질풍(광산구 신가동)은

온라인 홈페이지(3dwebtoon.com)를 운영하며 웹툰 3D 배경을 판매하고 있다. 이들이 만들어낸 3D 배경은 옷·신발 등 소품부터 '전주 한옥마을'과 같은 거리·상가단지까지 2000종에 달한다. 가격대는 개당 1000원부터 200만원까지 책정돼 있다. 3D 배경은 웹툰 뿐만 아니라 영화, 애니메이션, 게임, 건축 조감도, 소품·캐릭터 조형 등 활용 범위가 넓다.

이호 스튜디오 질풍 대표는 "지난해 회사를 설립한 이후 전주 한옥마을과 순천만국가정원 웹툰 3D 배경을 제작하는 등 관련 수요는 꾸준히 늘고 있다"며 "웹툰 창작자나 관련 기업이 이번 지원 사업으로 웹툰 3D 배경과 소품 모델링에 대한 구매 비용 부담을 줄일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환경 문제 내가 해결

환경부, 다음달 6일까지 2019 환경창업대전 공모

환경부가 자연을 보호하고 환경 현안을 해결할 수 있는 창업 아이디어를 다음달 6일까지 공모한다.

환경부가 주최하는 '2019 환경창업대전'은 ▲환경창업 아이디어 ▲환경창업 유망(스타)기업 ▲환경창업 학생동아리 등 3개 부문 수상자를 선정해 총 7500만원의 상금을 수여할 계획이다.

지난해 처음 열린 '환경창업대전'은 유망 환경창업을 발굴하고 환경 분야 고용을 늘리기 위해 마련됐다.

'유망 기업 부문'에서는 창업한 지 5년 미만 환경 관련 기업을 대상으로 총 8개팀을 선발한다. 대상 1000만원 등 선정 기업에게는 유망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상금이 주어진다.

'창업 아이디어 부문'은 대상(상금 500만원) 등 총 5개팀을 선발한다.

'학생동아리 부문'에서는 고등학생 또는 대학생 동아리 7팀을 선정해 활동지원금 200만원을 준다. 선정된 팀들은 창업 멘토링·교육 등 창업활동을 3개월간 진행하게 된다.

10월 발표경연 등을 거쳐 뽑힌 최종 1팀에게는 해외 창업박람회 탐방 기회와 인건 환경산업연구단지 창업공간 제공, 시제품 제작 시설활용, 전문가와 1대1 자문 연계, 초기창업 교육, 기업 홍보, 투자유치 등 다양한 지원을 받게 된다.

신청은 환경창업대전 누리집(ecostartup.kr)을 통해 할 수 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호남정보보호지원센터는 27~28일 중소·창업기업 등을 위한 '2019 호남정보보호 컨퍼런스 및 정보보호 역량강화 워크숍'을 연다. 지난 9일 열린 '사이버안전망 강화 세미나' 모습.

창업·중소기업 정보보호 지원 받으세요

호남정보보호지원센터 27~28일 정보보호 워크숍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의 호남정보보호지원센터(이하 센터)가 지역 중소기업의 정보보호 지원 신청을 받고 있다.

센터는 "광주·전남북-제주지역의 중소기업과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정보보호 프로그램을 무료로 운영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프로그램은 ▲홈페이지 취약점 점검 ▲정보보호 컨설팅 ▲시큐어코딩 테스트베드 운영

▲실무인력양성 등으로 구성됐다.

센터는 지난 9일 광주시 동구 동명동 아이플렉스에서 호남지역 중소기업과 공공기관 재직자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9 호남지역 중소기업 사이버 안전망 강화 세미나'를 열었다. 세미나에서는 한국인터넷진흥원과 마이크로소프트, SK인포섹 등 국내 주요 보안 관련 기업의 전문가들이 발제자로 나서 사이버 침해사고 예방 방법, 정보보호 서비스 지원사업 등을 설명했다. 또 사이버 위협 최근 동향, 지역 기업 정보보호 수준 제고를 위한 방안 등에 대한 논의도 이어졌다.

김호성 센터장은 "우리 지역의 중소기업은 예산, 인력 등의 부족으로 정보보호 관리가 안되기 때문에 정보보호 인식제고와 예방 활동이 꼭 필요하다"며 "호남지역 중소기업의 정보보호 서비스가 골고루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은 오는 27-28일 나주시 송월동 나주호텔에서 열리는 '2019 호남정보보호 컨퍼런스 및 정보보호 역량강화 워크숍' 온라인 신청(onoffmix.com/event/186695)을 23일까지 받는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조계현 원장의 특 특 창업이야기



'가성비' 창업에 주목하라

장기 불황이 만들어 낸 사회현상 중 하나로 '가성비'를 중시하는 소비흐름을 꼽을 수 있다.

소비자를 대상으로 사업을 해야 하는 예비창업자 입장에서는 이런 소비흐름을 아이템에 반영해 성공적인 성과를 거두는 경우를 종종 목격하게 된다. 그 결과 향후 창업시장의 주요 화두 중 하나로 '가성비'가 꽤 오랫동안 의미있는 자리를 차지하지 않을까 예상된다.

그렇다면 먼저 '가성비'의 사전적인 의미부터 살펴보자. 가성비는 가격 대비 성능의 비율을 줄여서 부르는 말이다.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한마디로 가격에 비해서 만족도가 높은 제품이나 서비스를 통칭해서 말한다고 보면 되겠다.

하지만 예비창업자 입장에서 보면 가성비 개념을 소비자에게 가격 대비 높은 만족도를 제공하는 제품, 서비스형 가성비 개념과 창업 자금 대비 높은 매출이나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는 창업아이템형 가성비 개념으로 나누어 접근할 필요가 있다.

제품, 서비스형 가성비 개념이 가성비 높은 제품이나 메뉴, 서비스 등을 창업아이템에 반영해 성공가능성을 높이는 전략이라면 창업아이템형 가성비 개념은 투자되는 창업자금에 비해서 높은 매출과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창업아이템을 선별해 창업하는 전략이라고 보면 크게 틀리지 않다. 이를테면 가성비 창업인 것이다. 이 과정에서 예비창업자들은 '알뜰창업'과 가성비창업의 차이에 대한 궁금증이 생길 것이다. 알뜰창업은 말 그대로 창업의 비용을 줄이는데 집중하는 창업방식이고 가성비창업은 투자 대비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는 창업방식이다. 물론 예비창업자 모두가 투자 대비 높은 수익을 기대하며 창업에 임한다. 하지만 모든 창업아이템이 투자 대비 높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는다. 대개의 창업아이템들은 투자 대비 낮은 매출과 수익률에서 정체를 면치 못하며 이어서 정체의 현상유지 수준으로 흘러간다. 하지만 창업아이템 중에는 유난히 창업자금 대비 수익률이 높은 아이템들도 존재한다. 그런 창업아이템으로 창업을 하는 것이 바로 가성비창업이다.

투자 대비 수익률이 높은 창업아이템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은 프랜차이즈 정보공개서의 열람이다. 프랜차이즈 정보공개서에는 각 브랜드별로 창업비용과 가맹점들의 평균 매출액을 의무적으로 공개하게 돼있다. 하지만 매출만 공개돼 있고 수익률이 공개돼 있지 않으니 수익률까지 알고 싶으면 분사에 문의하거나 기존 가맹점에 직접 방문해 해당 가맹점주에게 수익률에 대한 질문을 해보면 어느 정도 답을 얻을 수 있다. 이 과정에서 기왕 기존 가맹점을 방문할 예정이라면 자신이 창업하려는 상권과 비슷한 규모나 특성을 가진 상권에서 영업중인 가맹점을 방문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다. 그렇게 수집된 자료들을 분석하다보면 가성비 높은 창업아이템을 선별해 낼 수 있으며 동일 또는 유사한 창업아이템이 여러 브랜드에 따라 가성비의 차이가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렇기에 다양한 자료의 조사와 선별과정을 거쳐서 신중하게 가성비창업을 해야 하는 것이다.

경기는 좋지 않고 경쟁은 치열하고 운영비용은 상승하는 요즘 시대에서의 창업은 단순히 투자해서 망하지 않고 안정적인 운영을 하는 것이 목표라는 1차원적 접근 보다는 창업 준비과정에서 철저한 조사와 분석을 통해 투자 대비 수익률이 높은 가성비창업으로 안정적인 운영을 꾀하는 것이 좀 더 장기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창업이 아닐까 싶다.

<한국지역산업연구원 원장>

Aroma Life
아로마라이프
www.aroma-life.co.kr

광주역
엔씨백화점
광주역점
오리거리
아로마라이프
성요한병원
유동사거리

FACE 메이크업만 하는 시대는 끝!
이제는 BODY 메이크 UP!

☆☆
흐트러져 있는 살들을 제자리로 정돈 시켜 완벽한 몸매로!

가능성 보정속속 12년 장수기업
기능성 속옷의 명가

한국, 미국, 일본, 중국 특허
부위별로 특별하게!
생리적인 불편을 해소

편안한 착용감
탄성GOOD! 흡발습GOOD!
일본 도레이社 LYCRA
별단면육각형사용

실크프로테인아미노산가공
원적외선 가공

대리점·총판문의 **1588-2219**

본사 광주광역시 북구 경일로 235 V&G빌딩 서울사옥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 28길 5 축복빌딩(도곡동 518-9)